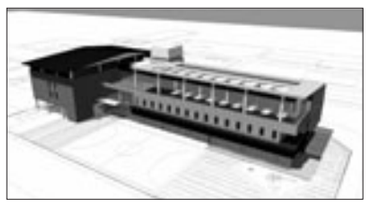
숲세대 포교 위한 불교회관 건립

고창 선운사, 2019년까지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완공 예정인 선운사 불교회관 조감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어린이 ·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포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불교회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선운사는 8월 18일 교구종회에서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불교회관 건립계획을 의결했다.

고창 불교회관은 지난 2013년 매입한 3,930㎡(1,188평) 대지 위에 연건평 3,596㎡(1,087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시설로는 법당을 비롯해 체육시설, 다목적실, 지도자실, 청소년 동아리방, 상담실, 어린이 도서관, 강의실, 북카페, 다문화 가족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운사는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이미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고창종합노인복지관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고창종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유아에서 노인, 다문화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종합 포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그동안 선운사는 교구 내 도심 포교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며 "불교회관이 완공되면 고창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포함한 포교시스템이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인근 폐기물 매립장 웬 말"

삼기 · 금마면 주민 반발… 불교계도 진상 파악 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륵사지 인근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성명을 내고 익산시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총 면적 2만7,698㎡의 부지에 약 30만㎥의 양을 매립하기 위해 익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폐기물 매립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폐기물 침출수로 인해 삼기 · 금마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농토와 수질오염은 물론 미륵사지 복원에도 타격을 입힌다"며 "낭산 폐석산 침출수 유출과 집단 암 발병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기 · 금마면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환경부, 국민권인위원회, 문화재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유네스코 본부에 서명용지를 보내 세계 여론에 호소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은 "아직 정확한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자들을 위한 사찰 경영 강좌

탑사 진성 스님, 선암사서 특강



태고종 행자들을 위한 사찰 경영 특강이 열렸다. 태고종 재경부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은 태고종 행자 제42기가 수학 중인 순천 선암사를 찾아 "복지를 실현해야 사찰도 경영할 수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사진〉

진성 스님은 이날 강의서 "향후 사찰 운영을 할 때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신도관리는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뤄지며, 사찰의 중요사업 중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교류를 늘려 나가야 나중에 신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템플스테이 함께여서 외롭지 않아요"

전남지역, 소외계층 위한 템플스테이 '훈훈'

다문화가족 · 장애인 등에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
외부 기관과 협력 통해
템플스테이 기획도 나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증심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한 외국인이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템플스테이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연광)는 광주지역 다문화가족과 유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8월 25~26일 1박2일 동안 진행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파키스탄 출신 5명을 포함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다문화가족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였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은 지구촌이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과 다름없었다. 참석한 가족들은 △증심사 안내 및 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 △자비명상 △놀이체험 △보물찾기 △단청체험 등에 참여해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키스탄에서 유학을 온 라임(27) 씨는 "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비록 종교적 뿌리는 다르지만 앞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증심사는 다문화가족 및 유학생 템플스테이 외에도 아토피피부염에 힘들어하는 아동을 위한 건강 템플스테이도 준비하고 있다. 증심사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남태한)와 함께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증심사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성 질환 환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 · 개발해 왔으며,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템플스테이 연계형 건강나누리 캠프를 9월 9~10일 1박2일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연계형 건강나누리 캠프는 산림치유와 명상, 예불 및 참선, 스님과의 차담을 비롯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연 속에서 내면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 증심사 템플스테이팀장은 "환경성 질환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풀어가야 할 큰 숙제가 됐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통산사와 어울린 깨끗한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증심사는 이외에도 소외받는 여성, 직장인을 위한 템플라이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도 8월 28일 광주지역 시각장애인 20여 명이 참여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은 광주 기아자동차 한빛차량봉사회와 함께 1대1로 짝을 이뤄 대흥사 경내 곳곳을 둘러보면서 청정한 도량의 기운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

김형수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설렘이다.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버스 타는 것, 박물관 가는 것 그 자체가 설레는 일이고, 사찰은 다른 곳보다 찾아가기 어려워 더 뜻깊다"고 말했다.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은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화합 씨앗, 전북서 싹 틔운다

9월 13~16일,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



전북지역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종교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를 9월 13~16일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김제, 익산, 완주 일대에서 개최한다.

'마음을 듣다(Listen to Your Hear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이웃종교의 생활과 문화예술의 체험 및 이해를 통해 종교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9월 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제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중창, 스님과 목사의 색소폰 협주, 여러 종교지도자들의 환담, 정태춘 · 박은옥의 특별 축하공연이 열린다.

14~16일 한옥마을 경기전을 비롯해 한국전통문화전당, 김포 중앙승가대학 등에서 열리는 종교열린마당은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의 특강과 예수병원 설립자 잉골드의 생애,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일대기 공연, 프랑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상영된다.

이에 앞서 11일부터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부제로 전주시청 로비에서 아름다운 사연들이 담긴 여러 종교 기록과 성물 등이 전시되며, 공예인 예술가들의 성물을 비롯해 전주한지로 된 기록유물의 복본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축제기간 중에는 전라북도 일대의 종교유산을 돌아보는 종교건축, 종교탐방도 함께 추진되며, 종교영화, 종교음악 등을 만끽하는 무대도 함께 열린다. 또 경기전 광장에서는 종교인들의 릴레이 버스킹이 연일 진행된다. 모인 기금은 전주한지로 제작된 공책을 유네스코를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16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펼쳐지는 세계종교포럼에는 UN NGO 및 종교 NGO 대표를 역임한 리베라토 바티스타의 강연과 종교지도자들의 대담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를 계기로 종교영화, 종교음식, 종교기록 등의 종교문화유산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향후 경제선순환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흥사, 해남교도소에 더위 날릴 생수 보시

8월 27일 총 1만병 전달

사회와 격리돼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수감자들에게 무더위를 해소해줄 생수가 전달됐다. 해남 대흥사는 8월 27일 전남 해남교도소를 찾아 생수 1만병을 전달하고, 더위에 지친 재소자들을 위로했다.〈사진〉

주지 월우 스님은 전달식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감로라고 한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든 사람, 교도소에 잠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 한 잔이 감로가 되어 앞으로 부처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7 부산광역시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 사업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제9회 희망 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



2017. 9. 9(토) 14:00 ~ 17:00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 참여대상 : 환우와 가족, 부산시민(개인,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기증&후원회원 등
• 참 가 비 : 무료
• 사전접수 : 8월 23일(수) ~ 9월 6일(수)
전화, 팩스, 이메일 중 하나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현장접수 : 오전 10시
• 체험부스 : 오전 11시 30분
• 문 의 : Tel. 051)853-0429 홈페이지 www.bslisa.or.kr
Fax. 051)853-0439 이 메 일 bssangmung@hanmail.net

기념품 증정 및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이 있습니다.

• 주최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BBS 부산불교방송 BTN
• 협찬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장수 산진어묵 주방기구 제조회사 엘지에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정해운대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하나병원 장전치과 큰솔병원 좋은강안병원 대동병원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